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8

먹어 본 사람만 맛을 안다

[원문]
용음고목유생희(龍吟枯木猶生喜)
촉루생광식전유(觸露生光識轉幽)
뇌락일성공분쇄(磊落一聲空粉碎)
월파천리방고주(月波千里放孤舟)
-동화사 조사전

[번역]
고목 속에 용이 우니 기쁨이 솟아나고
해골에서 빛이 나니 알음알이 깊어지네.
벽력같은 큰 소리 허공을 깨부수고
달빛 파도 천리에 외로운 배 띄우네.

[산해(禪解)]
어느 날 금오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 데 어디선가 풍경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스님이 한 수좌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네? 저 소리가 어디서 나오다니요 스님.”
스승의 난데없는 질문에 수좌는 그저 고개만 가우뚱거렸다. 매일 듣는 풍경소리였기 때문이다.

물며 불도(佛道)를 어찌 지식으로 이를 수 있겠는가.

이 법문은 나의 노스님인 금오 스님께서 침불암에서 정진했을 때 대중들에게 들려준 법문이다. 스님은 올바른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옹매 정진해야 한다고 늘 강조를 하셨는데 첫째도 참선, 둘째도 참선, 셋째도 참선이었다. 진정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참구하고 도를 뒤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글공부나 경전공부를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출가수행자의 목적은 확실히 대오 경선불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설익은 글공부나 경전공부는 방해가 된다는 게 스님의 철학이었다. 스님께서 평생 일관되게 하신 법문은 바로 ‘자기의 주인공 마음을 찾아 본래 청정했던 자신의 자리를 찾아라.’였다.

요즘, 나는 새삼 은사이셨던 금오 스님의 50여 년의 법문이 간곡하게 떠오른다. 왜 그럴까? 불가에 몸을 담고 지극한 수행으로 일관한 스님도 이제 세수가 팔십에 가까워졌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화를 지우고 살아도 모자라는 나이에 접어 든 것이다. 삶이란 이렇게 끊임없는 참회의 연속이다.

행을 이뤄 평판적이다. 손은 향마촉지인을 지었고, 오른쪽 다리는 대좌 위에 그냥 올려놓은 유희좌(遊戯坐)를 했다. 통견(通肩)의 법(法衣)은 평행밀집(平行密集)의 옷주름이며, 배에는 새롭게 띠 매듭이 등장했다. 이러한 수법은 9세기에 대두한 양식이다. 광배는 주형거신광(舟形擧身光)이며 두 가닥의 선으로 두광과 신광을 구분했고, 맨 가장자리 부분은 화염(火焰)무늬가 올라가는 그대로를 이용했을 뿐 따로 표현하지 않았다.

석조비로자나 불상은 고려 중기에 불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발(螺髮)을 한 머리에 상투 모양의 육계가 있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있다. 얼굴은 둥글고 투실하며 눈썹이 반달모양으로 분명하고 눈은 아래로 보고 있다. 코끝은 파손되었고 다른 입은 미소를 띠며 두 귀는 크게 늘어졌다. 법의(法衣)는 어깨를 두른 통견(通肩)으로 옷 무늬가 형식적이다. 수인(手印)은 지권인(智拳印)으로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있다. 그림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용음고목유생희 촉루생광식전유: 고목 속에 용이 우니 기쁨이 솟아나고 해골에서 빛이 나니 알음알이 깊어지네.’

주련 속에 담긴 내용은 일반 범속의 눈으로서는 감히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벼압록>에 보면 어떤 스님이 “무엇이 도입니까” 물었다. 그 때 도란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느니라(枯木裏龍吟)”고 했다. 말하자면 도를 얻었으니 그지없이 기쁨이 솟고 촉루 속에 든 해안(慧眼)이 깊어진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촉루는 해골을 가리킨다.

‘뇌락일성공분쇄 월파천리방고주: 벽력같은 큰 소리 허공을 깨부수고 달빛 파도천리에 외로운 배 띄우네.’

뇌락(磊落)이란 도량이 넓어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는 모양을 뜻하고 고주는 외로이 떠 있는 작은 배를 뜻한다. 이와 같이 도란 아무리 깊고 넓고 광대해도 달빛 푸른 파도에 띄우는 한갓 작은 배와 같다는 말씀이다. 즉, 고목에서 용이 우니 참오로도가 드러났으며 알음알이가 없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의 혼탁함을 지우고 그 마음속의 맑음조차 알지 못함이 바로 도(道)인 것이다. 그러므로 알음알이 따워오는 결코 도를 터득할 수 없으며 깊은 선정(禪定)에 이를 때만이 도를 이를 수가 있다. 이를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성불할 수가 있다는 부처님의 경구(警句)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8

성품은 청정해 물들지 않아

[원문]

只爲不見性 但得見性 愆本來空寂 不假斷除 亦不樂着 縱有餘習 不能爲害 何以故 性本清淨故 雖處在五蘊色身中 其性本來清淨 染污不得 法身本來無受 無飢無渴 無寒熱 無病 無惡愛 無眷屬 無苦樂 無好惡 無長短 無強弱 本來無有一物可得 只緣緣有此色身因 即有飢渴寒熱病等相 若不執即一任作

“자기의 성품을 보기만 하면 애욕은 본래 공적한 것이라 구태여 없애려 할 것도 아니고 즐겨 빠질 것도 아니니라. 설사 습(習)이 남아있더라도 방해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성품은 본래 청정하므로 비록 오온의 육신 속에 있더라도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물들지 않기 때문 이니라. 법신은 본래 느낌이 없으며, 굶주림이나 갈증이 없으며, 추위나 더위가 없으며, 질병이 없으며, 은애(恩愛)가 없으며, 권속이 없으며,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없으며, 좋고 나쁨이 없으며, 길고 짧음이 없으며, 강한 것이나 약한 것이 없어서, 본래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는데,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춥고 더우며 풍토병 따위가 있게 된 것이니라. 만일 속지 않게 되었으면 마음대로 해보아라.”

[해설]

오온(五蘊)은 색(色, 물질) 수(受, 감수 작용) 상(想, 표상 작용) 행(行, 정신적 행위) 식(識, 인식 작용)을 말하는데 결국은 육신을 색이라 하는 것이 고 수, 상, 행, 식은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본래의 마음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롱한 구슬에 때가 끼면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때가 벗겨내면 영롱한 구슬은 다시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과거와 미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오온의 경계에 고달려 청정불성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벗겨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본래자리에 마음을 두고 열불 정진을 하면 불성의 때가 점점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업장소멸(業障消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업이 우리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녹이면 불성(佛性)이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불 할 수 있습니다.

법신(法身)은 물질이 아닌 본래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분 나쁠 때 화를 내면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그러나 불성자리는 화를 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바닷물도 항상 잔잔하질 않잖아요. 큰 배가 지나가거나 태풍이 불면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잔잔해 지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물의 성질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거품이 일고 파도가 일었다고 해서 물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 마음도 5관을 통해서 경계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마음바탕은 조금도 경계에 흔들려 간 적도 없고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니까 마음바탕 자리는 억겁 전이나 억겁 후에도 조금도 증감이 없고 생도 죽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행위를 한다 해도 본래의 ‘참나’는 조금도 행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성(佛性)자리에서는 모든 경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달마 스님께서 오직 그 자리만 깨달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깨달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겪는 아픔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인 육신이 있기에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면 먹는 것, 입는 것, 자고 싶은 생각이 끊어집니다. 옛날에 탁발에 의지해서 살아 가던 시절이었는데 진묵 스님께서는 나이가 드시니 탁발을 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탁발을 하러 가서 보름 있다가 오면 진묵 스님께서 얼굴에 거미줄이 쳐 있고 수염도 나 있고 그랬답니다. 본래의 성품자리에 들어가면 안과 밖이 다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먹는다는 생각, 잔다는 생각이 끊어집니다. 이 경지는 굉장한 편안한 경지입니다. 모든 병이나 고통은 육신에 의해 괴로움을 겪을 뿐입니다. 본래 성품자리에 있는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만일 속지 않게 되었으면 마음대로 해보아라.”

물질세계가 모두 허망한 것이고, 허깨비와 같은 것이고, 꿈같은 것임을 알았으면 결집 없이 마음대로 해 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애행(無礙行)을 말합니다. 원호 스님은 그 자리를 확실히 깨쳤기 때문에 결집이 없는 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때가 신라시대였는데 낮에 술집을 드나들면서 술 바가지를 두드리며 ‘나무 아이티발’을 부르며 춤을 추곤 하셨답니다.

그 시대에는 원호 스님을 파계승이라 하여 수행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훗날에는 팔지(八地: 모든 번뇌가 멸진해서 다시는 동요되지 않는不動地)보살 경지 가까이 올라갔던 분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본래 자리, 물이 아닌 하나의 경지에 마음을 두고 있는 분은 어떤 행을 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행을 하기 때문에 업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 정주 혜은사 주지



갈대잎을 탄 달마(禪儒筆, 구보(久保) 기넴(吉南) 소장)

알음알이로 헤아리는 것은 도라 할 수 없고

본래 청정한 자신을 만나야 깨달음 얻은 것

오늘의 주련 여행은 금오 스님이 불교정화운동을 하시고 한동안 머물고 계셨던 동화사이다. 이곳은 신라 소지왕 493년(신라 소지왕 15) 극달(極達)이 세운 유가사(瑜伽寺)를 832년(흥덕왕 7)에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중건(重建)할 때 사찰 주변에 오동나무 꽃이 만발해 있어 동화사라 개칭했다고 전한다. 그 후 여러 차례 중창(重創)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에는 1732년 8번째 중건한 대웅전과 극락전을 비롯해 영경전(靈鏡殿)·천대각(天台閣) 등 20여 채의 큰 규모의 건물이 있고, 당간지주(幢竿支柱)·비로암(毗盧庵) 3층석탑과 동화사 입구 마애불좌상(磨崖佛坐像)·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금당암(金堂庵) 3층석탑·석조부도군(石造浮屠群) 등 보물 6점이 있다. 이밖에도 흥진국존진응탑비(弘眞國尊眞應塔碑) 등이 있다. 이곳에 1992년에는 높이 30m나 되는 석조 약사대불(藥師大佛)이 조성되었다.

마애불좌상은 보물 제243호. 불상 높이 1.06m, 대좌 높이 39cm, 광배 높이 1.5m. 지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며 불상 머리 위에는 바위가 튀어나와 부처를 보호하고 있다. 머리는 나발(螺髮)이지만 속계는 없고, 얼굴은 비만에 가깝다. 짧은 목에는 형식적인 삼도(三道)를 나타내고, 어깨는 반듯하나 위축된 듯이 보이며, 가슴·배 등이 전체적으로 평

평하며 볼도(佛道)를 어찌 지식으로 이를 수 있겠는가. 이 법문은 나의 노스님인 금오 스님께서 침불암에서 정진했을 때 대중들에게 들려준 법문이다. 스님은 올바른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옹매 정진해야 한다고 늘 강조를 하셨는데 첫째도 참선, 둘째도 참선, 셋째도 참선이었다. 진정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참구하고 도를 뒤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글공부나 경전공부를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출가수행자의 목적은 확실히 대오 경선불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설익은 글공부나 경전공부는 방해가 된다는 게 스님의 철학이었다. 스님께서 평생 일관되게 하신 법문은 바로 ‘자기의 주인공 마음을 찾아 본래 청정했던 자신의 자리를 찾아라.’였다.

요즘, 나는 새삼 은사이셨던 금오 스님의 50여 년의 법문이 간곡하게 떠오른다. 왜 그럴까? 불가에 몸을 담고 지극한 수행으로 일관한 스님도 이제 세수가 팔십에 가까워졌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화를 지우고 살아도 모자라는 나이에 접어 든 것이다. 삶이란 이렇게 끊임없는 참회의 연속이다.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늦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수수체에 혼승된 아뢰아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력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부터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반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이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전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조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렵듯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 체험신청하세쇼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2010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모집”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유물선 합일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방문화 창달을 교육목표로 설립된 특성화·차별화를 통한 창의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대학원대학교입니다.

1. 모집안내

Table with 3 columns: 학과, 과정(지원구분), 모집인원. Rows include 석사(신입), 석사(신입), 석·박사통합(신입), 석·박사통합(신입), 석·박사통합(신입), 석·박사통합(신입), 석·박사통합(신입).

2. 전형일정

- 【원서교부】 2009년 10월 12일(월)~10월 30일(금)
【원서접수】 2009년 10월 26일(월)~10월 30일(금)
【전형일자】 2009년 11월 7일(토)
【합격자 발표】 2009년 11월 18일(수) 본교 홈페이지

3. 전형 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시험
• 연구과정은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입시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전화: 02) 3668-9811.12
팩스: 02) 3668-9899

동방대학원대학교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www.dongbang.ac.kr